

아주대학교의료원소식

2004

3

통권 제 110호 / 발행일 2004. 3. 1 / 발행인 겸 편집인 김孝哲 / 발행처 아주대학교원 홍보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443-721) 전 화 (031) 219-5114

· 목 차 ·

- 2 호서소
서정호 교수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3 조병환 보건대학원장 인터뷰
- 4 내이 연구 내이대
미토콘드리아속의 미토콘드리아서
- 5 중앙재난대책
우리의 장위, 좋은 문화 만들기
- 6 이대의료원
스텐드 시술시 절전 보호기구
사용해야 보다 효과적 인 치료 보장
- 7 불-이온-이온화-이온화
대우그룹김우중회장기증의대병원
- 8 신의료기기
건강을 위해서 잘못터 잘 자라
- 11 2004학년도 신입생
참을수 없는 막대한 두려움
- 12 우리 대학 35주년을
100년 작은 송아의 호천사들
- 13 새교수들
- 21 2004학년도
- 추후의 화중
- 소아비만
- 22 내과-내과-내과-내과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만 되는가?
- 23 2004학년도
봉사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
- 24 2004학년도 4층 서빙동
- 25 100년 기념 2004학년도
한라산의 정기를 받다
- 26 이대의료원 소개
합숙내 시경
- 27 2004학년도
수지삼상병원
- 28 이대의료원
추천서
- 30 2004학년도
소식
- 31 신의료기기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함께한 고마운 10년!

함께할 행복한 100년!



봄을 맞는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교정에는 2004학년도 신입생들의 화사한 얼굴과 올해부터 환자진료, 강의, 연구를 함께 하여 줄 신입 교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을 정리하는 사료편찬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제 학술대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이벤트 등 각종 기념사업 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2004년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줄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의미있는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첨단시설, 유능한 의료진, 쾌적한 교육 및 진료 환경 등 경쟁력을 갖추고, 실천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끊임없는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



서정호 교수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교수의 정년퇴임식이 아주대의대 진단방사선과학교실 주관으로 2월25일 수요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홀에서 김효철 의무부총장, 허감 대한방사선의학회 이사장, 한동관 관동대의료원장, 가족, 진단방사선과학회 원로 교수, 동문, 동료, 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김효철 의무부총장은 『퇴임 이후에도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실 것을 기원』했으며, 허감 대한방사선의학회 이사장과 한동관 관동대의료원장, 텔런트 최불암 씨는 축사를 통해 『변함없이 후학양성과 방사선학 발전에 남다른 열정이 이어지길 부탁드립니다』면서 정년퇴임을 축하하며 아울러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서정호 교수는 그동안 고마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정년을 새로운 도약과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미뤘던

일들을 해보겠다」라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서정호 교수는 연세대의대 방사선과 주임교수 및 세브란스병원 방사선과 과장을 거쳐 1993년 아주대의대로 옮겨왔으며, 아주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및 병원장,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을 역임했다.

한편, 아주대학교는 2월24일 육곡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개강 교수세미나 마련된 퇴임식에서 서정호 교수에게 퇴임 기념패와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고, 서정호 교수의 업적과 공로를 기려 3월1일부로 진단방사선과학교실 명예교수로 임명했다.





입학생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 조병훈 초대 보건대학원장 인터뷰 —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웃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 궤도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상황은 항상 두렵고 도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대학교는 경기도 내에서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의 일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초대 보건대학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 명망에 맞는 보건대학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보건행정을 오랫동안 관리하셨던 경험에서 우리나라 보건학의 미래를 예측하신다면...

보건학이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개인소득 증가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편적인 예를 보면, 최근에 들어 신문, 방송 등의 매스컴에서 다루는 내용 중 건강에 대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다른 어느 학문보다도 현실성이 강한 보건학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져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직업분야 보다도 보건의료분야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 직업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발전 방향과 운영방침을 구상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다른 대학원들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지만 보건대학원은 특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29개의 보건대학원이 있어 우리 보건대학원이 다른 보건대학원들과의 차별화가 분명해야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대학원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원 중에서는 가장 직업적 전문성이 강한 대학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학생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그때그때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방향보다는 다른 학과의 전문교직원과의 끊임없는 토론과 연구과정을 거쳐 방향을 확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건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소양은...

입학생 전원이 직장생활을 몇 년씩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든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발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열의로 본교에 입학했습니다. 이들의 열의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감사진과 교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의 성공여부는 본인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생은 자기의 학습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담당교수에게 요청하면, 담당교수는 그 요청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입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속의 미로를 찾아서

따~르~릉~, 새벽 3시. 자명종 소리에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부비며 15리터용 아이스박스 5개 정도에 가루얼음을 가득 채우고는 1시간정도 고속도로를 달려 도축장으로 향한다. 소가 한 마리씩 도축되어 나오는 것을 기다려 20개 정도의 심장을 차례로 받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얼음에 담아 연구동으로 돌아온다. 항상 4°C로 유지되고 있는 3면이 유리로 둘러 싸여진 15평 남짓의 실험실, 소위 「냉장고 방(cold room)」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루 종일, 때론 밤을 새우며며 소의 심장으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분리하고 그 기능을 생화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에 나의 박사과정 중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이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나의 미토콘드리아 연구생활의 한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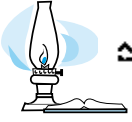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작은 소기관으로 세포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발전소이다. 그래서 이 발전소에 이상이 생기면 세포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미토콘드리아는 그 모양도 아주 독특하여 겉으로 보면 아주 둥글둥글한 빵공이나 호박같이 생겼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막이 주름진 미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작은 공간에서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새내기 생화학도였던 내가 미토콘드리아 연구에 깊이 빠지게 된 것은 그 기능의 중요성에도 있지만 실험을 하면서 눈으로 쉽게 확인되는 연분홍에서 적녹색 사이의 다양한 색깔의 변화와 빛의 파장에 따라

변화하는 고유의 스펙트럼, 더욱이 자신의 기능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형태와 위치를 바꾸어 가는 것이 나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었다.

1996년 초 박사학위를 받을 당시, 나는 한국에 돌아와 미토콘드리아 연구를 계속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여건이 미토콘드리아를 생화학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음에만 물어두고 있다가, 최근 3년간 새로 실험 기기와 실험기법들을 도입하면서 나는 다시 미토콘드리아를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분자적 수준에서 그리고 세포생물학적인 면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세포는 어떻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조절할까?」「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손상되면 세포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 답을 풀어내는 일이 많은 질병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이상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그리하여 결국 세포의 기능을 복구시키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 아직은 미토콘드리아 속의 미로에 깊이 묻혀 길을 찾아 헤매는 기나긴 여정 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그 행로를 밝혀내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윤계순 교수 / 생화학교실



우리만의 장점, 좋은 문화 만들기

2004년은 아주대학교의료원 체제로 업무를 시작하지 11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정신과 육체가 완성되고 자아(自我)가 형성되어 독자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성년기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사람은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옳고 그른 생각, 나쁜 습관 좋은 습관, 맹목적 반항심과 긍정적 사고 등이 자신도 알게 모르게 정신과 행동에 배어 있으며 한 가정 한 조직(組織)도 한 민족 한 국가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름대로의 옳고 나쁜 문화가 함께 만들어진다. 따라서 우리 의료원이 걸어온 지난 10년의 세월 속에는 옳고 나쁜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게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 교직원들은 대내외적 경영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형 대학병원의 복잡한 업무(진료) 운영체계를 국내에서는 최단시일 내 완성하였고 경영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성공한 운영과 경영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계속되는 경기 침체, 의료계의 경영환경 악화 등 변화에 대처하면서 자기 안주(安住)에서 깨어나 우리의 환경과 역량을 분석하고 십년, 이십년을 내다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우리 의료원 모든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또 한번의 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그 동안 우리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온 우리 의료원의 문화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나쁜 문화는 과감히 떨쳐 버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문화만을 우리들 스스로 조성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을 감히 제안하고 싶다.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직도 일부 교직원에게 남아있는 불신, 입단협 때마다 파업만이 능사(能事)인양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된 노동조합 문화, 필요한 재투자자과 많은 보수 좋은 근무환경과 복지후생은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들 스스로 자생하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재단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태심, 그 밖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에 집착한 대안(代案) 없는 비판, 집단 또는 개인들의 이기주의 등의 나쁜 문화를 과감히 버려야 하겠다.

반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온 좋은 문화는 우리 구성원들 모두에게 강한 응집력이요 우리만의 장점이다. 환자중심의 지고(至高)한 사명의식, 우리는 우수한 인재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한 귀중한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는 교직원들의 자부심, 의료기관으로서 상위권의 좋은 직장이라는 인식, 지역사회 의료기관들과 차별화된 경영정책으로 상호 협조적인 관계유지, 지역사회 의료봉사 및 자연보호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많은 단체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과 새로운 정보교환 및 전문교육 등 지역사회 의료센터의 역할, 교직원 헌혈봉사 및 자원봉사활동, 다양한 동아리 활동, 좋은 자연환경, 타 의료기관보다 앞선 남녀평등 실천, 신설 조직의 폐기와 유연성 등은 자랑할 만한 우리 의료원의 좋은 문화의 사례들이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좋은 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직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 그 문화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내가 원하는 일보다, 일이 원하는 나를, 내가 원하는 조직이 아닌, 조직이 원하는 나를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또 의료원 내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고객과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 마디 건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자.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켜 갈 때 우리는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 둘 자연스럽게 좋은 문화가 형성되어 갈 것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먹고 1~2 년만 우리들 스스로 좋은 문화를 조성하고, 그것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의료원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나아가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의료원이 될 것이며, 우리 의료원은 우리가 느끼는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새학기,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삼리만상의 변화를 상징하는 봄의 싱그러운 훈풍을 느끼며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無形)의 변화를 잠시 생각해 본다.

(필자 註) 문화란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존재양식 및 행동양식, 가치관과 신념, 이념과 규범, 전통과 관습, 지식과 기술 등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구성원들의 행동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로 인위적 조성이 가능한 기업문화나 조직문화를 뜻함.

최 영 / 행정부원장



스텐트 시술시 혈전 보호기구 사용해야 보다 효과적인 치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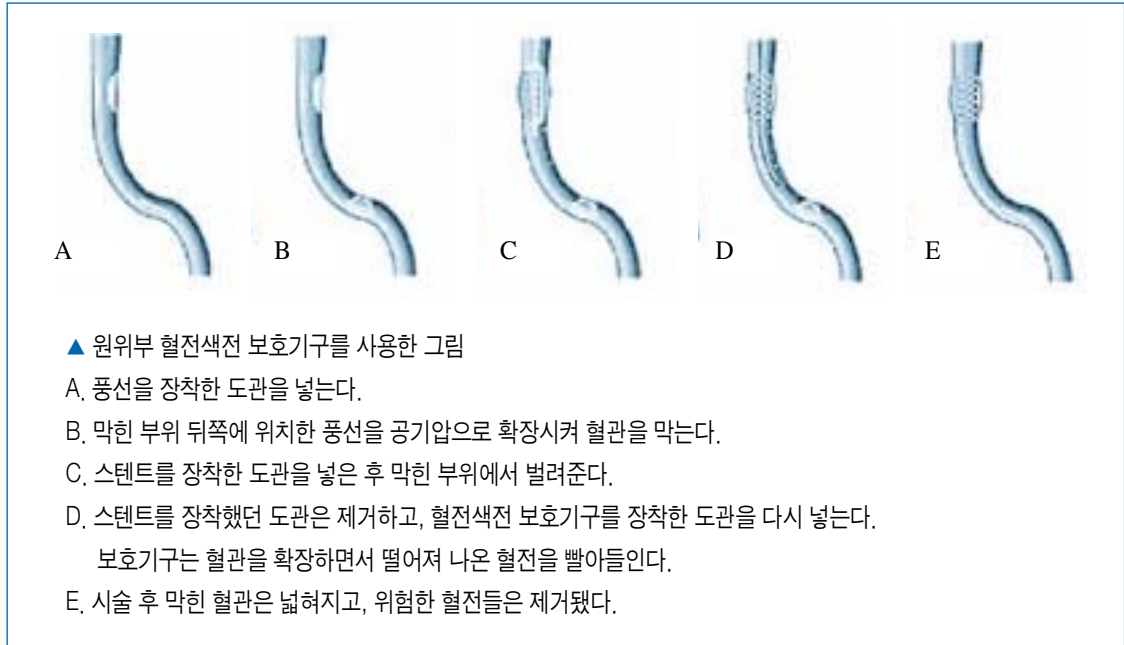
- 심근경색 환자에게 스텐트 시술시 혈전을 제거하면 치료효과 3배 늘린다 -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는 치명적인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게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시술을 할 때, 시술시 떨어져 나오는 작은 혈전과 동맥경화 조직들을 제거하는 보호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효과를 3배 정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주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탁승제 교수팀은 2002년부터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환자 100명 중 50명은 일반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고, 50명은 스텐트 시술시 원위부 혈전색전 보호기구(메드트로닉사)를 사용한 후 이들 두 가지 방법의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보호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50명은 15명(30%)만이 심장근육의 실제혈류*가 만족스럽게 회복된 반면, 보호기구를 사용한 50명에서는 40명(80%)이 매우 만족스럽게 회복된 결과를 보였다.

그동안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게 스텐트 시술시 가장 큰 문제는 막힌 관상동맥을 넓히면서 떨어져 나온 작은 혈전과 동맥경화 조직 덩어리들이 협착부의 뒤쪽에 위치한 작은 혈관들을 막는 것이었다. 따라서 막힌 큰 관상동맥을 잘 넓혀 주더라도 시술시 떨어져 나오는 혈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이들이 오히려 작은 혈관들을 막음으로써 정작 심장근육을 더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현재 급성 심근경



색 환자의 스텐트 시술시 약 70%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연구결과로 혈전색전 보호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술에 사용되는 원위부 혈전색전 보호기구는 매우 가는 도관으로, 스텐트 시술시 떨어져 나온 혈전이나 동맥경화 조직들이 작은 혈관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풍선도자와 조직들을 빨아내어 제거하는 흡입도자로 구성된 보호기구이다. 스텐트가 장착된 풍선도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매우 가늘어 시술자나 환자 모두 불편함이 없다.

탁승제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게 시행한 것이지만 다른 환자들의 스텐트 시술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더 많은 고위험군 환자에서 스텐트 시술시 원위부 혈전색전 보호기구를 시행해야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관상동맥질환을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술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탁승제 교수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2003년 9월과 11월 미국 워싱턴과 올란도 국제 심장학회에서 발표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註) 실제혈류*

관상동맥을 지나가는 혈류가 아닌 심장근육 자체를 흐르는 혈류로, 실제로 회복된 혈류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심장근육의 실제 혈류측정은 관상동맥 조영술을 이용한 새로운 심근혈류 판독법과 도플러의 원리를 응용한 초음파발신기를 장착한 작은 도관을 관상동맥에 넣어 스텐트 시술 후 혈류를 측정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의 만남

「돌아보는 의료원 10년」은 아주대학교의료원 10주년에 즈음하여 의료원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함께 공유하고픈 이야기들을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2004년에는 아주대학교의료원 10주년 기념 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병원 개원과 함께 우리 아주대학교의료원 체제가 시발하였고, 의료원의 모태는 다시 올해 개교 16주년을 맞이하는 아주대 의과대학이기에 의과대학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는 게 순서일 듯 싶다.

필자가 국내 의료계의 큰 스승이시자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던故 김효규 선생님께서 아주대의대 초대 학장으로 부름을 받고 많은 생각 끝에 연세대의대라는 정든 일터를 떠나 아주대학교로 옮긴 게 1990년의 일이다.

그리고 김효규 총장께서는 필자의 「결심」을 확인한 1월 중순경,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을 찾아뵙고 인사드릴 기회를 만드셨다. 필자 입장에서는 한 번 뵙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대 학장으로서 당시로서는 백지 상태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물론 대학병원의 앞날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을 전하고, 가능하면 아주대학교 설립자이신 김우중 회장님의 고견을 들어볼 요량이었다. 그때의 대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가 회장님을 쉽게 자주 뵙 수 있는 입장이 아닌지라, 오늘 뵙게 된 기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25 동란 이전에는 한강 이남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수원이 웬일인지 아주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 아주대학교로 가게 된 것은 여기 계신 김효규 총장님의 간곡한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신생 의과대학의 초대 학장이란 역사성과 신생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진취적 도전성을 함께 생각하지 않았다면 선불리 결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독일에서 의과대학생으로 시작하여 인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교수 과정을 거치면서 근 18년의 세월 동안 서구 의학을 경험하였고 1975년 귀국, 연세의대에서 지난 15년간 교수로서 한국 의학을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아주대 의과대학이란 신생 대학의 초대 학장직을 맡게 되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운영의 장단점과 서구 의과대학의 장단점을 지혜롭게 융합하여 지금까지의 운영 실태와 차별화된 새로운 개념의 의과대학

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김 회장님께서 저를 믿고 전폭적으로 뒷받침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제가 아주대의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신 김효규 총장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저는 아주의대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단호하게 말씀드렸더니 인내심을 가지고 필자의 말을 들어주시는 김 회장님이 「네, 잘 알겠습니다.」 하며 무게있는 짙은 답을 주셨다. 필자는 조금은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계속 말씀을 드렸다.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연구와 학생 교육이 중심이 되고, 의과대학 특성상 대학 부속병원을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개원에 앞서 임상 각과의 젊은 교수 약 30여 명을 개원 준비 차원에서 선발하여 1년 또는 2년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보내 최신 의학 지식과 의료 기술을 습득케 하는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김 회장님이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하고 물으셨다. 이에 필자가 약 5~6억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추진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회장님의 동의를 얻고 가벼운 마음으로 회장실을 나오는데, 함께 자리하셨던 김효규 총장님께서 필자보다 훨씬 더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어느덧 14년 전의 일이 되었지만, 오늘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렇게 우뚝 서게 된 데는 설립자인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의대 인가 과정에서 숨은 큰 역할을 하시고 신생 의대의 기틀 마련에 혼신을 다하신故 김효규 총장님의 도움이 얼마나 지대하였는가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이 성 낙 석좌교수 / 피부과학교실

필자 註) * 개원전 의사 선발 · 연수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차후 다시 언급할 예정.



건강을 위해서 잠부터 잘 자라

잠을 얼마나 자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 최근 「아침형 인간」이 서점가를 강타하면서 기상시간을 앞당겨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늘고 있다. 수면에 대한 갖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과연 나의 수면은 질이 나쁜 것은 아닌가?」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또한 「좀더 효율적으로 자고 싶은」 욕구도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정신과 정영기 주임교수의 도움으로 잠에 대한 건강학을 들어본다.

인간은 왜 자야만 하는가?

수면의 목적은 「심신의 피로회복」에 있다. 잠을 통해 낮 동안 혹사시켰던 머리와 몸을 쉬게 하는 것이다. 수면을 취하는 것은 몸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몸을 컨트롤하는 사령탑인 대뇌를 쉬게 하기 위함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대뇌활동을 잠시나마 쉴 수 있다. 자고 있는 동안 대뇌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정리하고 내일의 활동을 준비한다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끄떡대고 있을 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sleep on it」이란 말을 한다. 말 그대로 한숨 자고 나서 생각해 보란 뜻이다.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동안 기억들이 정돈되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한다.



시간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이지만 막상 우리 몸이 요구하는 수면에는 넉넉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 한 재미있는 통계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사람들은 인구의 거의 절반인 약 900만 명이 매일 아침 머리가 맑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거리로 나선다고 한다. 연간 3만5천 건의 자동차 충돌사고가 수면부족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는 신문 기사를 얼마 전에 보았다. 또 하루

1~1.5시간만 잠을 덜 자도 다음날 직장에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3분의 1이 감소된다는 통계도 나와 있고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졸음 때문에 생산성과 업무수행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면시간이 너무 짧은 사람들보다는 7시간 정도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산다는 조사도 있다.

잠에 인색한 사람들은 수면부족이 얼마나 큰 손실과 때로는 치명적인

건강을 바란다면 잠부터 잘 자라

현대인은 시간 기근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적, 직업적 책임이 우리의

성장 호르몬은 수면 중에 분비된다

자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뼈나 근육 발달에 필요한 것이 성장 호르몬인데,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육불량 등 각종 장애를 일으킨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다.

어른에게도 성장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높이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등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다. 상처가 저절로 낫는 것도 이 호르몬 덕택이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은 취침 2~3시간 후에 분비된다. 잠들기가 어려우면 깊은 수면도 취하기 어려우므로 성장 호르몬 분비량에도 영향을 주어 양이 줄어든다.

특히, 여성의 수면부족이나 수면불량은 결과적으로 성장 호르몬의 부족을 초래하므로 아무리 화장으로 숨기려 해도 피부 트러블을 감출 수 없다.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듯이, 미용을 위해서라도 꼭 자야 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피부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새삼 깨닫고 몸과 마음이 마땅히 받아야 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수면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생활 환경, 타고난 소인

과 생리적 요구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는 동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물 중에서 잠을 제일 많이 자는 동물은 두 발가락 나무늘보이다. 나무 위에서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을 자는데,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천적이 적은 육식동물은 잠을 많이 잔다. 호랑이나 사자는 15시간 정도 잔다. 몸이 큰 초식동물인 코끼리는 불과 3~4시간 정도 잔다. 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풀을 먹거나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몇 시간 정도 자는 것이 좋을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차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시계에 의존하지 않고 저절로 눈을 뜰 수 있는 시간이 그 사람에게 적당한 수면시간이다.

보통 사람들은 수면시간이 7시간 전후인데,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단시간 수면자도 있다. 단시간 수면자는 정력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야심가이다. 외향적 성격의 소유자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나폴레옹이나 에디슨, 영국의 대처 전 수상도 단시간 수면자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9시간 이상 자는 장시간 수면자도 있다. 10시간 이상은 자아했다는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인 장시간 수면자다.

불면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

잠을 잘 못이루는 것만을 불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을 많이 자도 일어날 때 충분한 피로 회복감을 못 느낀다면 불면이며, 밤새 꿈에 시달려 잔 것 같지 않은 것도 불면이다. 잠은 비교적 빨리 드는데 도중에 자주

혈액은 자는 동안 만들어진다

잠이 부족하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구나 한번쯤 이런 증상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여러 가지 보수·유지관리가 이루어진다. 새로운 혈액도 이때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잠이 부족하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체내에서 새로운 혈액을 만들지 못한 채 오래 된 혈액 그대로 순환되므로 눈 밑이나 입술이 창백해지는 것이다.

수면건강 자가진단

수면은 단순히 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피로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다음과 같은 수면과 관련된 행동이나 습관이 있으면 건강한 수면에 방해가 된다. 각각 체크해 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 ① 저녁에 과식을 하는 편이다
- ② 밤에 간식을 즐긴다
- ③ 잠들기 2시간 전에 물이나 음료수를 많이 마신다
- ④ 잠을 자기 전에 술을 가끔 마신다.
- ⑤ 잠자리가 매우 폭신하다.
- ⑥ 잠자리가 너무 딱딱하다.
- ⑦ 잠들 때 음악을 들으며 자는 경우가 많다.
- ⑧ 잠들 때 스텐드 빛과 같이 작은 불을 켜 놓는다.
- ⑨ 실내 온도를 약간 덥게 하고 잔다.
- ⑩ 내일을 위해 억지로 자는 편이다.
- ⑪ 자기 전에 무서운 영화나 TV 프로그램, 책을 보곤 한다.
- ⑫ 침대나 잠자리에서 책을 보거나 서류를 검토하는 등의 일을 많이 한다.
- ⑬ 저녁 식사 후 커피를 한 잔씩 한다.
- ⑭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이 아니고 편안할 때 자리에 눕는다.
- ⑮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한 편이다.
- ⑯ 점심시간 후 잠깐씩 낮잠을 즐긴다.
- ⑰ 가끔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한다.
- ⑱ 저녁에 격렬한 운동을 하여 피곤을 유발한다.
- ⑲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그대로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한다.

※ '아니오' 가 많을 수록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임.

블루먼데이는 주말 늦잠에서 시작된다

일요일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한 주간의 피로를 풀다고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거나 늦잠을 많이 자면 일요일 밤에 잠들기 어려워진다. 낮잠을 자지 않더라도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불면의 원인이 된다. 샐러리맨들이 월요일에 느끼는 우울함은 업무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주말의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한 몫을 한다. 휴일날 늦잠을 자더라도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더 자면 안 된다.



깨는 것 역시 불면에 속한다. 임상적으로 불면증은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불면증은 약물, 알코올 중독이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요인, 질병, 수술 후유증에 따른 통증, 야근이나 해외출장에 따른 생활리듬의 변동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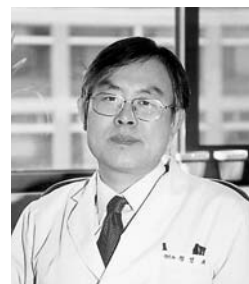
나이를 먹으면 수면 또한 변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 깊은 단계의 수면, 즉 깊은 잠이 줄어들고, 도중에 잘 깨며,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한 변화는 중년부터 시작된다. 또한 초저녁잠이 많아지고 아침잠은 없어지는 변화가 생긴다. 낮에 졸고 잠깐 낮잠을 자는 경향도 생긴다.

몸과 마음이 편해야 잠이 잘 온다

잠자리에 들어 5~10분 안에 잠들어야 가장 깊게 잘 수 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무심히 넘겼던 생활 속의 원인들을 하나 하나 짚어서 개선해 가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 잠자기 전 3~6시간 전에는 깊은 수면을 해칠 수 있는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섭취를 피한다. 잠자기 3시간 전 과식도 금물이다.
- 침실에서는 일을 하지 말고 잠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한 TV나 비디오를 보지 않는다.
- 하루 30분 적당한 운동을 하되 잠자기 전 3시간 전에는 운동을 피한다.
- 따뜻한 우유나 허브 차 또는 카페인이 들어 있지 않은 차를 마신다. 체온을 올려 잠 드는 데 도움이 된다.
- 바나나, 땅콩 버터 등 자연적인 진정효과가 있는 트립토판(tryptopan)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조금 먹는다.

- 퇴근해 집에 온 뒤 선잠을 자지 않도록 한다. 나중에 밤잠 자기가 어려워진다.
-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 20분 안에 잠들지 못하면 침대에서 나와 잠시 책을 읽는다. 반드시 졸릴 때 잔다. 억지로 자려고 하면 더욱 긴장되어 못 잔다.
- 마사지, 명상, 요가, 음악, 긍정적인 상상, 바이오피드백, 따뜻한 물 목욕 등은 머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
-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고 서늘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양말을 신는 것도 좋다. 발톱이 따뜻하면 잠드는데 도움이 된다.
- 멜라토닌은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투약시간을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부부생활이 잠 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다.



정 영 기 주임교수 / 정신과학교실



참을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

일 반적으로 장기(신장 또는 간)의 일부를 기증하는 경우 신체에 장애가 생기거나 평생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장기를 기증하는 과정에 불리한 점이 있다. 수술 및 마취의 위험도를 극복하여야 하며, 수술 후 회복과정 중에도 불편함이 다소간 있으며, 회복과정으로 한두 달 정도는 지나야 원래의 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과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증자는 미리 신체검사를 철저히 받게 된다. 또한 남아 있는 장기가 다치지 않도록 항상 외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기 기증자들은 일시적인 불편함이 지나고 나면 원래의 생활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간혹 장기의 기능면에서 생활에 장애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신장의 경우 건강한 사람은 2개의 신장을 지니고 있는데, 양쪽 모두의 신장기능을 100%라고 하면 실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능은 약 20~40% 정도이다. 즉, 신장의 기능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은 약 60~80%의 여분을 가지고 있으며, 신장 한쪽을 신장 기능이 필요한 투석환자에게 제공하더라도 (50%의 기능 소실) 나머지 신장이 생활에 필요한 신장 기능을 충분히 하면서도, 10~25% 정도의 여분이 남게 된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남은 신장이 그 기능을 더하게 되어 약 60~70% 정도로 기능이 늘어나게 된다. 마치 팔 한쪽이 없는 사람의 남아있는 팔이 더 힘세지고 굵어지는 현상과 같다. 그러므로 한쪽 신장을 제거하더라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신장기능은 충분히 남게 되며,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기를 제공하기 전에 의료진이 충분한 기능적인 검사를 통하여 모든 제공자의 신장 기증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간을 기증하려는 경우에는 신장의 경우와 다른 측면이 있다. 간은 1개씩을 지니고 있어 간의 일부를 기증하려는 경우 간을 쪼개어 제공하게 된다. 간의 경우에도 건강한 사람의 전체 간 기능을 100%라고 하면 생활에 필요한 기능은 약 25~40% 정도이다. 신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0~80%의 기능적 여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의 40~60% 정도의 일부 간을 기증하더라도 남아있는 간이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더욱이, 간은 재생이 되는 장기이다. 마치 잘라진 도마뱀의 꼬리가 다시 자라 원래의 꼬리 모양으로 되듯이...

신장기능이 소실되어 평생동안 투석으로 생활하여야 하는 환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신장기능을 나누어 보다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신장 기증과 간경화로 인한 증상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하게 되는 환자를 위하여 자신의 간을 쪼개어 기증하는 간장 기증 등의 장기 기증은 타인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표현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에

우리 모두 다함께 건강해지는 길

장기기증은 사랑입니다

제 몸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장기기증은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가슴시리도록 고귀한 이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장기이식 TFT ·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문의전화 031-219-5547 | 016-9277-5376

Organ Transplant

있어 가족 중에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더라도 주저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장기 기증은 순수한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증의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장기 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을 하고 있으며, www.eesik.net이나 장기이식 코디네이터(☎031-219-5547, 016-9277-5376)와 상담할 수 있다.

오창권 교수 / 외과학교실

제 몸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장기기증은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가슴시리도록 고귀한 이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장기이식 TFT ·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문의전화 031-219-5547 | 016-9277-5376



1.02kg 작은 승아의 수호천사들

2003년 9월11일. 양수가 갑자기 터져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다. 너무나 무서웠고 오로지 우리 아기 걱정에 정신이 멎었다. 수술준비를 위한 방사선 촬영을 곁에서 도와주시던 방사선사는 양수가 샅까 제대로 못 움직이는 나를 친절하게 도와주고 분만실까지 데려다 주셨다. 분만실에 와서는 몇 가지 체크와 초음파 검사를 한 뒤 수술이 결정되었다. 수술시간은 저녁 8시!

28주 3일 만에 분만을 해야 하는 나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많이 불안해 하는 나에게 분만실 간호사 선생님들은 가족처럼 포근하게 대해 주었다. 「아기는 괜찮을 것.이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나에게 위안이 되던지 모른다.

드디어 수술시작! 걱정과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얼마 후 「일어나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회복실이었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서도 우리 아기의 생사가 궁금했다. 병실에 도착한 후 조금 지나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다는 우리 아기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1020g의 미숙아! 그리고 무사하다는...」

보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로는 보기가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다. 아기를 볼 용기가 나질 않았다. 드디어 첫 면회! 우리 아기를 보기도 전에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다. 너무나 작은 우리 아기를 보는 순간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아주 밝은 얼굴로 아기의 상태를 조목조목 설명도 해주시고 잘 자라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걱정스런 눈빛으로 우리 아기를 보고 있는 나에게 의사 선생님께서는 너무 예쁘다고 「잘 먹고 자아서 더 예쁜 것 같아요.」라며, 아기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나에게 큰 위로를 해 주셨다.

하루에 두 번 있는 면회시간! 우리 부부는 항상 면회시간만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루 하루 지나면서 충격과 걱정은 어느덧 희망과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도 드디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 승아 퇴원날짜가 잡힌 것이다. 퇴원을 한 뒤에도 우리는 승아에게 작은 변화만 있어도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전화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친절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또한 퇴원하고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가끔 우리 승아 잘 크고 있냐고 전화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다.



▲ 모유만 먹고 자란 승아와 부모

승아가 병원에 있을 때 면회시간 즈음하여 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적이 있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면회시간임을 알려주셨다. 뭔가 몽글한 걸 느꼈다.

우리 승아가 태어나서 48일간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항상 친절히 대해주시고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시던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아이처럼 정성껏 돌봐주신 덕분에 지금 우리 승아가 건강하게 내 품에 있지 않나 싶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아이들과 함께 하고 계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여러 아기의 부모님께 화이팅을 외쳐 본다.

김기현님 /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거주

의료원 ▶▶▶

의료원,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가져

- 경기도 및 수원시와 합동으로 개최 -



의료원은 조류독감으로 인해 닭고기 소비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관련 산업 및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류독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지난 2월 20일 금요일 12시10분부터 1시간 동안 교직원식당에서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 및 수원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시식행사에는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한 홍창호 병원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시식행사 메뉴는 ▲ 영양삼계탕 ▲ 닭강정 ▲ 반찬류(김치, 석박지, 오이지무침, 풋고추) 등이 나와 닭 3,000마리가 소요됐다.



초대 보건대학원장 임명

아주대학교는 2월20일자로 조병륜(趙炳倫) 초대 보건대학원장을 임명했다.

초대 조병륜 대학원장은 197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986년 서울 올림픽조직위원회 의무국 국장, 1989년과 1994년 두차례 보건사회부 보건국 국장, 1996년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원장, 1999년 을지외과 대학교 명예총장,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의료자문위원, 대한항공 식품안전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제1회 Ajou Bio-Future Forum 개최

의료원은 오는 3월12일, 13일 양일간 별관 대강당과 병원 로비에서 제1회 Ajou Bio-Future Forum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주대학교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관련 교수와 연구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Ajou Bio-Future Forum은 Platform 및 포스터 발표와 ▲ 한국과학기술 연구지원 동향 ▲ 대형 공공연구과제 수혜전략 ▲ 경기도의 차세대 동력사업을 주제로 한 세 개의 특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의료원은 이번 포럼 이후 참신한 연구 주제와 선도그룹을 공모하여 연구사업비를 지급하는 Bio-Future Grant Award를 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교직원 채용시 AIDS 바이러스 검사 시행

의료원은 2004년 2월1일부터 신규 교직원 채용시 정규 신체검사 항목에 Anti-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AIDS 바이러스)검사를 포함하여 시행한다. 의료원은 기존에 신규 교직원 채용시, 기관 부담으로 18종목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AIDS가 확산됨에 따라 기관 차원의 감염예방, 법적 문제 대비책을 위해 AIDS Virus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제2회 교직원 월례회 개최

의료원은 지난 2월28일 토요일 오전 7시30분 별관 대강당에서 제2회 교직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월례회 1부에서 2003년 우수전공의 시상식과 의료원 1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선정작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개최됐다. 올해 베스트 레지던트에는 마취통증의학과 박관식 레지던트가, 베스트 인턴에는 이명희 인턴이 선정됐다. 또한 병원은 윤유상 전공의협의회장(흉부외과)과 신승준 인턴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2부에서 「딛고 일어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이었다」는 주제로 산악인 엄홍길 씨의 특강이 있었으며, 이어서 3부에서는 소의영 기획조정실장이 2004학년도 예산편성에 관하여 발표했다.

의료원 직제규정 개편

의료원은 제230차 법인이사회에서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 및 외국인진료센터를 신설하고, 치료방사선과를 방사선종양학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상정(안)이 통과되어 2월20일부터 직제를 개편했다.

의료원 1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작 최종 선정

의료원은 10주년 기념사업의 다양한 행사에 사용될 슬로건을 공모하여 최종 선정작을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슬로건은 「함께한 고마운 10년! 함께할 행복한 100년!」, 「당신의 건강이 아주대의료원의 보람입니다」로 이 2편의 슬로건에 대해 5층집중치료실 기은정 간호사와 교학팀 이영옥 직원을 시상하고 응모자 전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했다.



어린이집, 제4회 졸업식 개최

어린이집은 2월20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제4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홍창호 병원장, 최영 행정부원장 등 교직원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설립과 함께 등원해 5년동안 건강하게 자라난 수료생들의 졸업과 초등학교 입학 축하했다.



김유찬 부교수(피부과학교실)

2004학년도 신규 교원 임용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신규교원 39명을 3월1일자로 임용했다.
 부교수 1명, 조교수 9명, 대우조교수 1명, 연구조교수 1명, 전임강사 1명, 대우전임강사 4명, 연구강사 22명 등이 부임했는데, 특히 피부과학교실 김유찬 부교수는 학계에서 피부종양으로 지명도가 높은 분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박재범 조교수(예방의학교실)



신승수 조교수(호흡기내과학교실)



이필휴 조교수(신경과학교실)



정용식 조교수(외과학교실)



전영수 조교수(정형외과학교실)



김세혁 조교수(신경외과학교실)



박동하 조교수(성형외과학교실)



문상호 조교수(안과학교실)



김현준 조교수(이비인후과학교실)



김재일 조교수(신경과학교실)



김진석 조교수(의과학연구소)



권명희 전임강사(미생물학교실)



박주현 전임강사(호흡기내과학교실)



조재호 전임강사(정형외과학교실)



강두경 전임강사(진단방사선과학교실)



김병문 전임강사(진단방사선과학교실)

제11회 히포크라테스 선서식 및 간호학부 성적우수자 시상식 개최



의과대학은 2월20일 금요일 2003학년도 학위수여식을 맞아 의학부 히포크라테스 선서식 및 간호학부 성적 우수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오후 3시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에서는 총장상을 수상한 안성민 학생을 비롯하여 10명의 학생에게 성적 우수상이 수여됐다.

오전 11시 송재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호학부 성적 우수자 시상식에서는 총장상을 수상한 정규과정의 박진 학생과 학사학위 특별과정의 송인선 학생 외 14명에게 성적 우수상이 수여됐다.



재활의학과 이일영 교수, 대한척수손상학회 초대회장으로 선출

재활의학과교실 이일영 교수(現 대한재활의학회 회장)가 지난 2월21일 연세대의대에서 개최된 대한척수손상학회 창립총회 겸 학술대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척수손상학회는 척수손상환자를 신경외과, 정형외과와 함께 초기단계부터 재활의학과, 신경과, 비뇨기과 등의 진료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자 회복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됐다.

창립초회에서 이일영 교수는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임기 2년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일영 교수는 척수손상 및 심장재활 전문의로,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약 16년 동안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국립의료기관인 웨스트 록스버리 보훈병원 척수손상재활센터에서 과장으로 봉직한 바 있으며,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옮긴 후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물의 부력을 이용한 수치료의 도입 등 국내 척수손상환자들의 재활 치료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재활환자들의 사회복귀와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희석 교수, 미국 부인암학회 정회원 선출



산부인과학교실 유희석 교수가 지난 2월7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제35차 미국 부인암학회에서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미국 부인암학회 정회원은 임상과 학술 연구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부인종양 산부인과 전문의로, 회원 전원이 동의하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되고 있다. 현재 비미국 출신의 미국 부인암학회 정회원은 90명이며, 유희석 교수는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로는 세번째로 부인암학회 정회원이 됐다.

간호학부 국가시험 3년 연속 전원 합격

간호학부는 지난 1월30일 시행된 제44회 간호사 국가자격시험에서 전원 합격되는 쾌거를 올렸다. 올해 간호사 국가자격시험에는 정규 4학년 37명이 응시, 3년 연속 100% 합격의 성과를 기록했다.

의료원 연구공간 운영 TF팀 구성

의료원은 제한된 연구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중장기적인 공간 운영 전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원 연구 공간 운영개선 TF팀」을 구성했다.

의료원 연구공간 운영개선 TF팀은 ▲ 공간의 중복점유 조정 및 단계적 회수 ▲ 연구 및 실험실 활용도 파악 및 조정 여지 확인 ▲ 점유공간 수익자 부담 원칙의 비용 부과기준 마련 및 시행 검토 ▲ 연구업적 평가확인 과 공간 점유 실태를 비교하여 향후 계획 파악 ▲ 개인 연구 관련 등 의료원 경영 외적 공간점유 실제 파악 ▲ 벤처성 외부 업체 및 산·학 협동연구사업체 관계 정립 및 해결점 모색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의료원 연구공간 운영 개선 TF팀은 왕희정 의학부장을 팀장으로, 허균 의과학연구소장, 호흡기내과학교실 황성철 교수, 생화학교실 최경숙 교수, 해부학교실 이영돈 교수, 교학팀 박진명 계장, 기획팀 임병철 직원으로 구성, 2004년 1월부터 목적달성까지 운영된다.

뇌질환연구센터, 세계 뇌주간 맞아 뇌질환의 이해, 강연회 예정



뇌질환연구센터는 오는 3월15일부터 21일까지 세계 뇌주간(Brain Awareness Week: 전 세계 57개국이 동시에 매년 3월 셋째주를 「뇌주간」으로 정하고 행사를 갖고 있다)을 맞아 「뇌질환의 이해」란 제목으로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3월18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아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강연은 ▲ 치매·알츠하이머병의 이해와 대책(뇌질환연구센터 김승업 소장) ▲ 뇌졸중의 이해(신경과 주인수 교수) ▲ 파킨슨병의 개념과 치료(신경외과 안영환 교수)로 진행될 예정이며,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연은 무료입장이며, 참석자에게는 「소형 뇌모형」을 배포할 예정이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 평소 뇌질환에 관심있는 학생, 일반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강연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뇌주간 홈페이지(<http://www.sfn.org/baw>)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 학생연구원 실습제도 실시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CIDRC)는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의 하나인 생명공학에 활용 가능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방학을 이용하여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연구원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첫번째 학생연구원을 선발된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인성, 백충희 학생은 지난 1월5일부터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에서 6주간의 실습을 마쳤다. 다가오는 하계방학 기간에는 일반 대학교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시행할 예정이다.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장인 약리학교실 주일로 주임교수는 「학생연구원 제도의 활성화로 기초 연구 및 임상연구, 의과학 및 BT 등, 학제간 hybrid 연구인력을 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연구결과 도출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CIDRC홈페이지 : <http://cidrc.ajoumc.or.kr>

병원 ▶▶▶

**戰時대비 중점관리기관 지정적격 평가 받아
- 아주대병원, 전시 1,800명상 운영**

병원은 199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시대비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재원조사 방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4일 시행된 방문 결과 임무수행 양호 및 지정적격 평가를 받았으며 전시 1,800명상 운영 임무 고지를 받았다.

정신과, 대국민 정신건강 강좌 예정

정신과에서는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부부갈등의 해결 및 주부 우울증에 대한 주제로 공개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4월8일 목요일 오후 2시~4시
- 장 소 : 아주대학교병원 지하1층 아주홀
- 내 용 : 부부갈등의 해결, 주부 우울증
- 연 자 : 정신과 정영기 교수, 노재성 교수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연구센터 소식지 발행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연구센터는 최근 2003년 추·동호 소식지를 발간했다.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연구센터 2003년 추·동호는 합기백 소장의 발간사를 비롯하여 ▲ 센터소개 ▲ 세부과제 안내 ▲ 센터소식 ▲ 연구실적 ▲ 기획기사 - 「맞춤의학이란 : 맞춤의학이란 가능한가?」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연구센터는 센터 내 소식과 연구동향을 알리기 위해 매년 2회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제6회 아주대학교병원 내과부 연수강좌

내과부는 개원의, 전문의, 전공의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제6회 내과부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 일 시 : 3월21일(일) 08:00~16:00
- 장 소 :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지하1층 대강당
- 사전등록 : 3월15일(월)까지
-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6평점
- 등 록 비 :
 - 개원의 및 전문의 사전등록 3만원
당일등록 4만원
 - 전공의 및 간호사 사전등록 2만원
당일등록 3만원
- 입 금 처 : 제일은행 692-20-187408 (예금주 이기명)
- 문의 전화 : 031-219-5100

천식약제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모집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에서는 새로 개발된 천식약제 임상 시험 참여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 대 상 : 최소 6개월 이상 만성 천식증상 유경험자
- 해 택 - 임상시험 동안 진료비와 치료약 무상 지급
- 폐기능 검사 및 임상 실험실 검사 무료 제공
- 문 의 처 : 아주대학교병원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외래
- 신현정 연구간호사 (log0702@hanmail.net)
- 이현준 연구간호사 (www.cyworld.com/bariton53)
- 연구책임자 : 박해심 교수, 남동호 교수
- 전 화 : 031-219-5902, 216-8265

신문.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2.2	동아일보	피부과 이상낙 석좌교수	여론마당 토크라치 부작용 어쩌려고
2.3	국민일보	소화기내과 이광재 교수 중앙혈액내과 임호영 교수 외과 서광욱 교수	암을 알자, 암을 막자 - 대장암 전문가
2.3	경향신문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 외과 윤희정 교수	인체질병탐험 - 간암, 간명의
2.4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진단방사선과 김재근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번비
2.10	중앙일보	순환기내과 탁승제 교수	심근경색 수술시 혈전 생성 막는 기구 나와
2.11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잠미와 초콜릿
2.11	경기일보	순환기내과 탁승제 교수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시 보호기구 사용 효과적
2.13	중앙일보	이비인후과 김철호 교수	군침 돌아야 건강하다
2.14	한국경제	순환기내과 탁승제 교수	심근경색수술 부작용 크게 개선
2.17	국민일보	산부인과 유희석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암을 알자, 암을 막자 - 자궁경부암 치료팀
2.18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유방암
2.18	경인일보	순환기내과 탁승제 교수	심근경색환자 급속량 시술, 보호기구 3배 효과
2.19	경인일보 외2종	산부인과 유희석 교수	美부인암학회 정회원 선출
2.19	매일경제	진단검사의학과 이위교 교수	인간광우병 계속된다
2.21	경인일보	홍창호 병원장	닭고기 소비축진 행사
2.25	한겨레	정신과 신윤미 교수	부모가 말문 안열면 아이도 말 늦어
2.25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대장계실에 난 염종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2.9	KBS 뉴스광장	순환기내과 윤명호 교수	심장근육 손상 줄이는 법
2.13	MBC 화제집중	소아과 박문성 교수	미숙아
2.18	SBS 뉴스추적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반쪽짜리 건강보험
2.21	SBN 뉴스	홍창호 병원장	닭고기 시식 의사들도 동참

2003년도 한 해 동안 보내주시는 귀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한해 동안 모아진 아주사회사업기금은 모두 215,643,907 원이며, 여기에 ▲ 교직원 급여이체 43,594,000원 ▲ 지로 1,725,600원 ▲ 방문 접수 성금 10,372,620원 ▲ 은행간 계좌이체 127,942,954원 ▲ 사랑의 동전 및 이자 2,008,733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모든 후원자님들의 정성과 도움으로, 모두 211,909,948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지원	267건	184,699,977원
● 보장구 지원	10건	15,425,100원
● 약제비 지원	5건	577,360원
● 사회복지관 지원	7개소	3,540,000원
● 사랑의 줌도리 쌀 나누기		7,226,600원
● 지정기타금 반환		10,087,811원
● 행정비용		353,100원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및 재활용품 지원, 지역사회내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사회사업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원자분들의 관심과 사랑은 아주사회사업기금을 통해 열매를 맺어, 많은 아픈 이들이 건강하게 가정으로,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도 변함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움과 관심을 필요로 하나 미처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의 우리 이웃들을 찾아 후원자들의 소중한 뜻을 온전히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원의 환자 뿐 아니라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작은나마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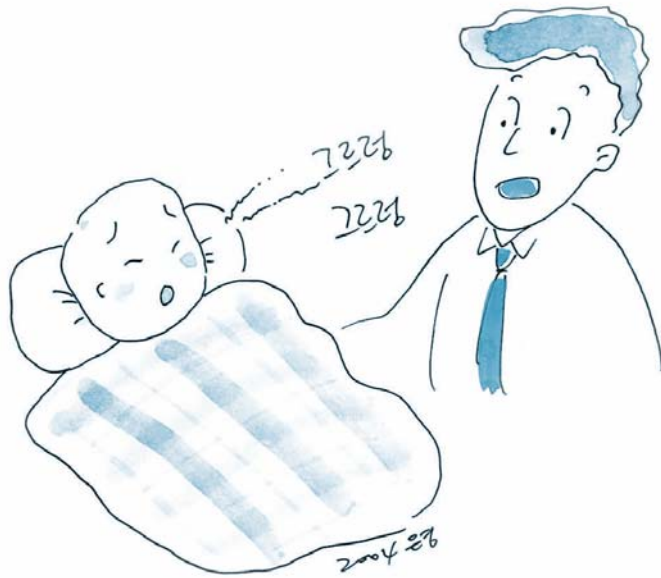


- ▶ 지로계좌번호 7657236
- ▶ 은행무통장 입금
제일은행 692-20-116147
- ▶ 예금주 아주대학교의료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16개월된 아이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납니다



Q 16개월 된 남아입니다.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납니다. 근처 소아과에서 후두 연골이 굳는 과정으로 18개월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한 것은 아닌지, 그냥 두면 나아지는지 걱정입니다.

A 어린 아이가 특히 선천성질환이라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만약 후두연화증이 맞다면 일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16개월간 수유와 호흡에 큰 문제없이 지내고 성장에 문제가 없다면 이 병에 대한 치료는 불필요합니다.

후두연화증은 후두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선천성 질환으로 다양한 정도의 호흡곤란과 간헐적 흡기성 천명(후두에서 소리가 나는 현상)이 생기지만 대부분 12~18개월 사이에 자연 호전이 되므로 수유와 호흡에 큰 문제가 없다면 관찰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단 소아의 후두의 모양이 성인과 달라 후두연화증이 있는 아이와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두경부 질환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비인후과 김 철 호 교수 〉

아이가 소아비만이라 걱정입니다

Q

12살 남자 어린이를 둔 부모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때 부터 다리가 불편하여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동을 못해 점점 살이 찍니다. 식이요법도 신경 써서 하는 편인데 잘 되질 않습니다. 현재 키 150cm, 몸무게는 60kg 인데, 비만클리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들 대부분은 안쓰러운 마음에 자녀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아이들이 먹겠다는 것을 다 허락하여 자녀들이 비만에서 헤어 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아드님은 체질량 지수가 26.7Kg/m²으로 95% 이상이 되는 비만입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나이가 12살로 곧 빠른 성장이 일어날 시기입니다. 따라서 체중을 빼주는 것보다는 체중을 유지 시키거나 체중을 천천히, 1년에 0.5~1Kg정도로 늘어나도록 해주면, 키가 크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해야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식이 제한은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아드님의 경우, 다른 아이들보다 활동이 적으므로 식사를 그만큼 줄이고, 채소, 과일, 육류, 우유 등 성장에 좋은 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짜고, 라면, 빵, 국수, 스파게티, 떡볶이, 햄버거, 튀긴 통닭, 돈까스, 도우넛, 피자, 핫도그, 사탕, 케이크, 과자, 초콜렛 등 부피가 적으면서 열량이 높은 식품을 줄이면 2~3년 내에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학과 김 범 택 교수)

가정의학과 외래 031-219-5959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독자 여러분께 좀 더 유익한 의학정보지로 다가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참여는 보다 나은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건강 Q & A / 나의 건강상식은

궁금해 하시는 건강문제에 대해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아주대병원 이용에 있어 느끼신 점 혹은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최대 200자 원고지 5매(A4 3분의 2장 정도) 이내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보다 좋은 병원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 나누고 싶은 이야기 / Zoom & 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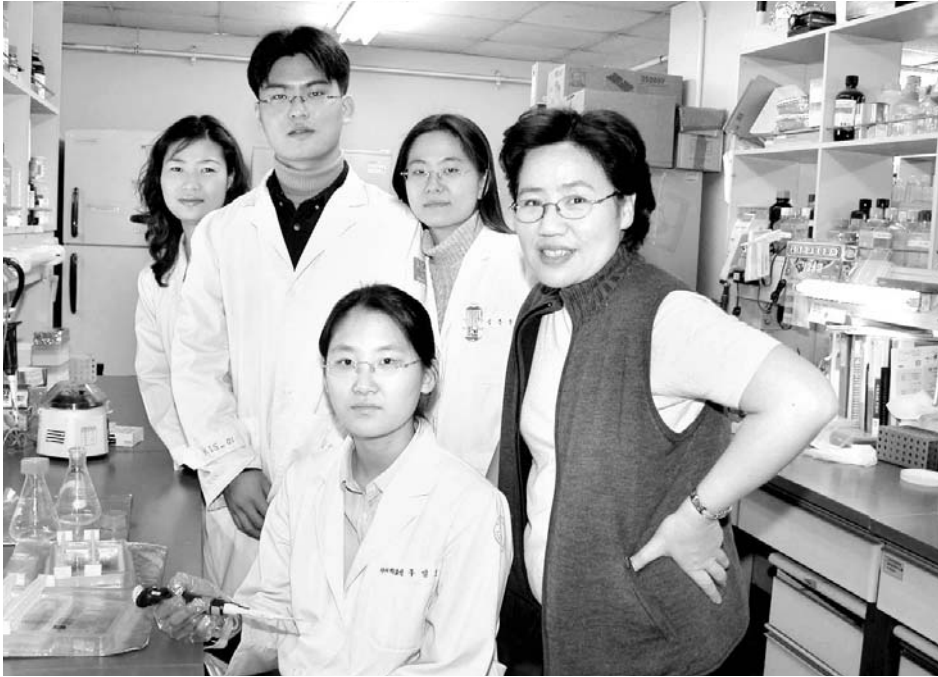
아주대의료원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 따뜻한 사연이 있는 분을 아주대의료원소식에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제보·원고 보내주실 곳

- 전 화 031-219-5368 • 팩 스 031-216-6386
- 주 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443-721)
- 이메일 apr@ajou.ac.kr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만 되는가?



망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또한 의대를 가면 의사만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기초분야에서 연구를 하거나, 기자가 되어 의학 관련 기사를 쓰는 등 생각보다 여러 분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졸업하고 뭘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처럼 미래를 임상 의사의 테두리에 한정시키는 것은 싫었다. 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고 싶었다.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약리학 수업시간에 주일로 교수님께서 방학 동안에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에서 일해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지원해 보라고 하셨다. 약리학 성적이 맘에 걸리긴 했지만 ^^ 약간 용기를 내서 우리는

선생님을 찾아갔고 그렇게 방학 6주 동안 학생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센터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방학 동안 정말 여러 가지를 배운 것 같다. PCR, western, 세포배양, 세포계 계대 배양 등등 수업시간에 배운 것들을 실제로 해보았고, 책으로만 볼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물론 이중에 실습시간에 해본 것들도 있지만 그땐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 시간도 촉박해서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지나가 버렸던 것 같다. 실험실에선 박사과정에 있는 선생님과 1:1로 배우니까 이해도 잘되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질문도 하고 게다가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즐겁게 일할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실험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니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특히 세포 배양을 할 땐 정말 힘들었다. 실험도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세포가 외부 자극에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했다. 그리고 태어난 지 하루 된 새끼 쥐의 목을 가위로 자를 땐 너무 불쌍해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실험에 열중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뇌를 예쁘게 잘 꺼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다. ^^;

우리는 이번 학생연구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첫 수혜자들로서 앞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런 기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한번쯤 꼭 해보라고 추천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실수도 많이 하고, 금방 배운 것도 잘 잊어버렸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 주신 약리학교실의 모든 선생님들께 너무나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 인 성, 백 총 희 학생 / 제1기 MRC 학생연구원

봉사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



신생아실과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봉사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99년 3월이다. 그 해 우리 부서의 사업계획을 구상하던 중 나의 제안으로 경기남부 아동보호소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번 아동보호소를 방문하여 빨래나 청소 등 잡다한 심부름을 할 계획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아동보호소를 방문한 결과, 우유 먹이기나 목욕 등의 신생아 돌보기를 해 주고 방문 횟수도 일주일에 한번 일정한 시간을 위해 3~4명씩 팀을 구성하여 매주 화요일 오전에 2시간씩 방문하게 되었다.

처음 그 곳을 방문하였을 때 이불 한 장만 깔아 놓은 방바닥에 2~3일 밖에 안 된 신생아에서부터 8~9개월 된 유아까지 뒤섞여 누워 있었고, 신생아의 위생을 위한 특별

한 시설이나 관리 없이 한 명의 보육사와 도우미 아주머니가 힘겹게 아기들을 돌보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정도였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다른 특수간호팀 간호사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었고 소아과 박문성 교수님 또한 보호소에 방문하여 신생아들의 검진을 해 주시기도 하였다.

하지만 왕복 2시간 걸리는 거리에 2시간씩 신생아를 돌보고 바로 병원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부서원들 모두 많이 지치고 힘겨워하여 봉사를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2002년 2월까지의 방문으로 만 3년간 이루어진 모든 봉사활동을 아쉽게 마치기로 하였다.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명절 등에 하던 선물 전달은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지만 역시 누군가를 돕는 일은 경제적인 것으로만 채우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간호사로서 신생아를 돌보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호소 봉사의 경험은 큰 보람과 우리 구성원 각자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회의 그늘진 면을 함께하는 넓은 시야 또한 만들게 해 준 것 같다. 그리고 가끔 다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올해 1월에 방문하였을 때 그 곳의 시설이나 인력이 우리가 처음 방문하였을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보호소에 머무는 아이들 모두에게 따뜻한 온정이 지속되어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동안 저희 봉사활동에 성원해 주신 의료원측과 특수간호팀 식구들, 간호부에 감사드립니다.



부인과 환자들을 위한, 4층 서병동



4층 서병동은 우렁찬 신생아의 울음 소리와 보호자들의 환한 미소로 이른 아침을 맞이하는 산부인과 병동이다.

4층 서병동은 총 36병상의 아담하고 조용한 병동으로 산모들이 기쁘고 아늑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인과 환자들에게는 여성이라는 공감대로 가족과 같은 편안한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박선혜 수간호사와 총 11명의 간호사들이 새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는 산모들과 아프고 지친 몸을 이끌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절로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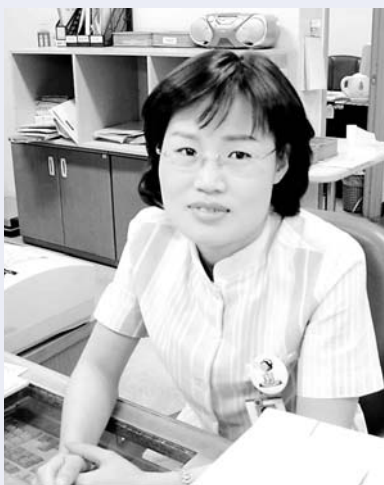
임신과 분만, 산후관리, 모유수유, 신생아 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 모자보건증진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병동, 분만실, 신생아실)가 참여하는 출산준비교실도 운영하고 있으며

모유수유 권장을 위하여 병동 내에 모유수유 자료와 유축기가 비치된 모유 수유실이 있다. 또한 가족대기실에 모니터를 비치해 분만실의 산모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편의까지 배려했다.

다정다감하고 깊은 사랑으로 뽕뽕 뭉친 의사, 간호사들이 정확한 판단력과 신속한 대응으로 최상의 진료와 간호가 이루어지는 병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안성옥 간호사가 말하는 4층 서병동



어느덧 세월이 흘러 무성한 나무들을 보면서 아주대학교병원의 나이만큼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화고 성장했는지 느낀다.

4층 서병동은 입퇴원이 잦고 여성 환자를 간호해야 하기에 더욱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와 섬세함이 필요한 곳이다.

어려움 속에서 첫 아이를 분만하고 얼마 되지 않아 쉽게 임신이 되어 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의 얼굴을 또다시 보면 기쁘다. 반면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함에 심신이 지쳤을 때에도 환자와 보호자가 모두 밝게 치료받곤 했던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신 소식을 접하게 되면 안타까움에 가슴이 저려온다.

얼마 전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의료인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닌 정신적인 면까지도 생각하고 돌볼 수 있는 의료인이 되어야겠다고 말이다.



은하수를 끌어당길 만큼 높은산, 한라산(漢拏山)의 정기를 받다 (雲漢可拏引也)

「꼭 꼭 꼬끼오~」 새벽 3시20분, 닭 우는 핸드폰 벨소리에 눈을 떴다. 드디어 산악회원들과 1년간 계를 끝내고 제주도 한라산에 오르기로 한 날이다. 한라산에 현재 눈이 온다는 예보로 가슴이 새 가슴이다. 집을 나서며 새벽 날씨는 약간 쌀쌀하고 바람도 있지만 별이 초롱초롱 반짝일 정도로 맑고 청명하다.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은 5시10분 드디어 출발! 김포공항에 도착해보니 제주도 현지 기상악화로 결항이 속출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가 탈 비행기는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무튼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하여 예약된 버스와 하루 전날 도착한 제주도민 치료방사선과 김도형 회원에게 현지의 날씨와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안타깝게 어제 온 눈과 눈바람으로 인해 한라산 등산로가 전면 폐쇄되었다고 한다. 오! 어찌하리오, 1년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닐까?



계속된 한라산 관리소와의 전화는 불통이고 회원들은 목적지를 잃은 배처럼 힘이 없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간절함 때문인지, 9시경 입산통제가 풀린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회원들의 기쁜 함성이 버스에 하나 가득 메아리치고 우리는 기수를 돌려 성판악으로 향했다. 관리 사무소 안내 방송이 나온다. 계속된 폭설로 백록담 정상 산행은 금지되었고 진달래 산장까지만 등반이 허용된다고 한다. 그래도 기쁘다. 눈이 많은 관계로 스패치와 아이젠을 점검한 후 회원들에게 안전산행을 당부하고 등반을 시작했다.

초반부에는 심한 바람에 귀와 볼이 얼얼하였지만, 30분쯤 오르자 바람은 수그러들고 간간히 눈이 오기 시작했다. 간밤에 내린 눈은 약 40cm정도 되어 보이고 그 이전에 내린 눈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산행은 한라산의 부드러운 곡선만큼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약 1시간쯤 산행하자 겨울산행의 진미를 맛보게 하는 황홀한 눈꽃을 볼 수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삼나무와 그와 어우러진 설화는 입으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숲을 지나자 사철나무의 푸른 숲을 볼 수 있었다. 삼나무와 사뭇 다르게 위가 아닌 옆으로 퍼진 각각의 나무들마다 아주 두터운 눈 이불을 덮고 푸른색과 백색이 아름다움을 연출하였고, 계다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져 내릴 듯 한 그 모습은 상상 이상의 동영상을 만들어 냈다. 바로 이런 것이 겨울산의 묘미이고 설경의 극치가 아닐까 생각 한다

어느덧 선두가 진달래산장에 도착했다는 무전이 왔다. 후미와 약 30분 간 차이가 난다. 혼을 빼는 듯한 설산의 경치 속에 드디어 후미도 진달래 산장에 도착했다. 산 정상은 눈보라로 인해 어렵듯이 보인다. 저기가 정상(여기서 2.3km)인데..., 아쉬움이 남지만 어떻게 하리 훗날을 기약해야 했다.

지난 주말에는 약 5천 명의 사람이 다녀갔다고 하였는데 오늘 갑작스

러운 산행통제로 인해 그렇게 많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산장 안은 눈바람을 피해 식사하려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간단하게 상봉주와 식사를 마치고 하산을 시작했다. 하산 길은 편안하다. 엉덩이만 갖다 되면 저절로 미끄러져 간다. 말 그대로 눈밭이다. 어린아이처럼 소리치며 신나게 하산하여 4시쯤 전원 무사히 관리소 주차장에 도착했다. 정상은 비록 오르지 못했지만 회원 하나

하나의 표정 속에서 환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인원 점검을 하고 의료원에서 마련해 준 한화콘도에 여장을 풀었다.

저녁 단합을 위해 제주도민이 안내한 용이 놀다갔다는 용연못과 제주도의 경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횃집에서 횃뚝을 시식했다. 특히 핵의학과 전병길 기사장과 사모님께서 17년 만에 찾은 제주도이며 결혼 기념일 전이라고 했다. 모두 한뜻으로 축하하며 즐겁게 밤을 보냈다.

다음날은 짧은 관광을 하였다. 비록 1박2일 짧은 일정이었으나 한라산의 좋은 정기와 제주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짧은 추억 하나를 만들 수 있었다.

끝으로 의료원과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



아주대학교병원 캡슐 내시경 도입



아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가 캡슐내시경을 도입, 2004년 2월 23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캡슐내시경이란 길이 2.6cm, 직경 1.1cm, 무게 3.7g짜리 캡슐 알약 모양의 무선 소형내시경으로, 입으로 삼킨 후 소화관의 연동운동에 의해 식도, 위, 소장 및 대장으로 이동하면서 소화관 내부를 촬영하여 컴퓨터로 전송하는 첨단 내시경 검사장비이다. 의사는 캡슐내시경이 항문으로 배출되기 전 8시간 동안 찍은 소화관 내부의 사진을 통해 소화기질환을 찾아낼 수 있다.

캡슐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강이 넓은 위나 대장 보다는 기존의 내시경으로 보기 힘든 소장의 내부 모습 전체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장질환은 우리 나라에서 비교적 드문 질환이었지만,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로 대장질환과 함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 및 치료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소장질환은 소장 바륨조영술, 컴퓨터 단층촬영술(CT) 및 MRI 등 여러 방사선학적 진단법을 사용하였으나 진단율이 매우 떨어지며, 소장은 길이가 6~8m에 달하고 구불구불하며 소화관 한 가운데 위치하여 기존의 내시경으로는 소장 전체를 볼 수 없었다. 소장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길게 특수 제작된 소장내시경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며, 내시경을 깊숙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힘든 검사로 널리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캡슐내시경은 검사가 간편하며, 환자가 겪는 고통이 거의 없다. 특히 일반적으로 내시경검사를 받기 힘들었던 고혈압, 심장병, 만성 호흡기질환 환자도 검사가 가능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소화기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장협착이 의심되는 환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또, 캡슐내시경은 검사시작 8시간 후 배터리의 수명이 다해 재사용이 불가능한 1회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해 검사비용이 비싼 것이 단점이지만, 앞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저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캡슐내시경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소장질환은 소장의 종양, 혈관기형, 크론병, 베체트병, 장결핵, 궤양성 대장염 등의 염증성 장질환, 흡수장애증후군, 원인 불명의 만성 설사·만성 빈혈·장출혈·복통·다발성 용종 등이다.

캡슐내시경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법 중 소장 내부를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앞으로 소화기질환 특히, 소장질환을 진단하는데 널리 사용될 전망이다.





환자위주의 서비스구현에 앞장서는 병원, 수지삼성병원

수지 유일의 종합병원

수지 유일의 종합병원인 수지삼성병원은 2001년 3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리(현재 용인시 풍덕천동)에서 100병상, 4층 규모로 개원하였다. 개원 초기부터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여기에 뛰어난 의료진, 첨단 의료 장비, 청결한 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어 최근 격변하고 있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수지삼성병원 130여명의 직원들은 지금의 수지 삼성병원을 있게 해 준 인근 지역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쫓고리고 들어 왔지만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친절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몸으로 실천하는 친절서비스에 탄탄한 이론을 겸비하여 환자에게 더욱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미래형 전문병원으로

수지삼성병원은 목전에 다가온 의료시장개방에 적극적인 대비책을 준비 중에 있다. 진료 및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고자 외국계 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계획을 모색하고 있으며 불필

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시간단축 및 환자진료에 시간을 더욱 할애하기 위하여 바코드카드(칩) 하나로 환자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진료카드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도 더욱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협력병원인 아주대학교병원과의 환자교류에 있어서도 온라인상으로 진료의뢰 및 회신이 가능한 진료의뢰 회신시스템의 전산화도 시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모든 행보가 수지지역뿐 아니라 더 나아가 경기남부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인 것이다. 신생병원의 탄력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앞선 수준의 진료를 선보일 수지삼성병원의 발전상을 기대해 본다.

지역주민과 밀착된 서비스

수지삼성병원은 현재 200병상, 6층 규모로 성장하였다. 내과·2, 소아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2, 일반외과, 정형외과, 마취과, 방사선과, 피부비뇨기과를 두루 운영하고 있으며, 통증클리닉, 당뇨클리닉, 비만클리닉, 척추클리닉 등 만성 환자 및 특정질환 환자들을 위한 클리닉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다. 응급환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외래진료의사들은 call 시스템을 통하여 24시간 대기상태로 응급환자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수지삼성병원은 진료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마저도 즉시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내원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환자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시정·조치함은 물론,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해당 환자에게 직접 회신해 줌으로써 병원과 환자와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쌓아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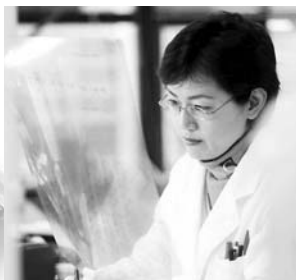
또한 환자를 직접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하여 매일 친절직원 및 친절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고객이 주는 의미 있는 시상이 됨과 동시에 인센티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직원들은 사기가 진작되면서 직원들 서로 간에 친절로 경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여기에 분기별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의

김 영 배 팀장 / QITM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총계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 | | |
|----------|------|-------------------|
| • 지로납입 | 전화신청 | 031-219-4000 |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 • 무통장 입금 | 거래은행 |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
| | 제일은행 | 692-20-166907 |
| | 한미은행 | 542-00896-248 |
| | 농협 | 116-01-060243 |
| | 국민은행 | 593501-01-082841 |
| | 우리은행 | 177-089499-13-102 |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기금 모금 현황

구 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 간	3명	7,620,000원	12,895,000원
누 계	338	1,798,945,531원	1,748,033,331원

성 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	-----	---------

<의료원 납입분>

경 미 숙	500,000	원무팀
배 형 준	2,000,000	외부후원(우리대학약국)
전공의협의회	3,000,000	
전 진 옥	20,000	외부후원
정 재 호	2,000,000	성형외과학교실 교수
정 해 근	100,000	시설관리팀
교직원 분납분	7,775,000	(교직원 급여 공제)

(가나다순)
2004.2.9~2.17



게시판

유전학클리닉, 사랑의 릴레이 제10호 발간



유전학클리닉(한국희귀질환연맹)은 최근 한국희귀질환연맹 소식지인 사랑의 릴레이 제10호를 발간했다.

제10호 사랑의 릴레이에는 ▲ 희귀·난치병에 대한 정부 정책 ▲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대한 의료급여 정책 ▲ 사랑의 릴레이 운동 등에 관한 특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및 발달증진클리닉
유치원생 대상 심리평가 서비스 실시



학습 및 발달증진 클리닉은 지역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수원시내에 거주하는 예비 초등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평가 서비스를 저렴하게 실시했다.

이번 심리평가는 대상 아동의 전체 기능과 언어성 동작성 기능,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지능검사, 주의집중력 검사, 인성 및 사회성 검사, 양육태도 검사 등을 통해 바른 자녀 양육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이다.

학습 및 발달증진클리닉의 신윤미 교수와 조선미 교수는 앞으로 유치원생들에게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운행 노선 (운행간격 : 20분)

- 병원 → 아주대 입구 (우리은행) → 미소지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명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편 이화약국 → 아주대 삼거리 → 국립지리원(팔각정 갈비 옆) → 병원

■ 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AjouMC**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www.ajoumc.or.kr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목 응급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진료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관절염 내과 센터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박해심	5902	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남중호	5902		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루푸스, 통풍	★
	민병현	5543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척추외과	
	원애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수부 및 상지외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목 응급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진료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유전학 클리닉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중증 클리닉	김찬	4331	월, 수, 금		삼차신경통, 다한증, 수족냉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4331	화, 목, 토	수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두통, 교감신경위축증	★
	일반진료	4332	월, 화, 목, 금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등 압성통증 기타	
유방 클리닉	정응식	4743	월, 화, 목*	목	유방질환 및 갑상선 질환	
	윤태일	4743	수*, 금		유방질환 및 내분비 질환	★
					*은 밤모름 시술만 시행	
학습 및 발달증진 클리닉	신윤미	5814		화	스어·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조선미	5814	금, 토	수, 금	심리검사 프로그램	

진료과목	전문클리닉명	의사명	진료시간 (진료번호)	오 전	오 후	비고
소화기 내과	간암클리닉 5976	조성원	5969	월, 화, 목		
		이기명	5963	수, 토	월	
순환기 내과	심부전클리닉 5717	최병일	5974	월		
호출기 내과	여행자 예방접종클리닉 4730	최영화	4730	목	월, 수	
알레르기 내과	발독(곤충독) 알레르기클리닉 5902	박해심	5905	월, 금		
		남동호	5905	화, 토	목	
정신과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클리닉 5814	임기영	5810	화	목(19:00~21:00)	
피부과	안면색소클리닉 5917	강희영	5914	수, 금	월, 수(레이저치료) 목	★
흉부외과	하지정맥류클리닉 5752	최호	5752	화, 목	화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5664	신용삼	5664	해외연수중		★
		김선용	5858	수		
성형외과	구순구개열클리닉 5614	박명철	5611	수		
		안면윤곽 미용클리닉 5614	정재호	5612	화, 목	금
신부인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 5597	황경주	5597	월, 수, 금	월, 금	
안과	콘택트렌즈클리닉 5673	문상호	5671	화, 목, 토	화, 목	
		문상호	5671			화(1주, 3주) 화(2주, 4주)
비뇨기과	요실금클리닉 5585	최중보	5587	화, 금	수	
		김영수	5586	수	금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 5959	김범택	5957	월, 수, 목	금	★
		신상호	5957	목		
치과	인공치아 이식클리닉 5869	황병남	5869	화, 목		
		고석민	5869	화	수	
	턱관절장애클리닉 5869	황병남	5957	금	월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4년 3월1일 현재>

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후 11:30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내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췌·담도질환	
	함기백 5963	월, 목	화		위장질환	
	이광재 5963	화, 금	목		위장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유병무 5962	월, 수	금		췌·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토	월		위장관질환	
	정재연 5962	금	화, 수, 목		간질환	
	김종수		월		소화기질환	★
	최준혁	수			소화기질환	★
	임태영	목			소화기질환	★
최해진		금		소화기질환	★	
순환기내과	최병일 5974	월, 화, 수			심장혈관질환	
	탁승재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기술	
	신준한 5975	월, 목	화		심부전, 심장질환, 고혈압	
	황교승 5975	목	월, ㉠		부정맥, 전기생리적검사, 전극도자극검사, 인공심박동기	★
	윤명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기술	
	최소연 5975	금	수,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기술	
	최태영 5975	화			고혈압, 심장질환	
	최병주 5973	토			고혈압, 심장질환	
	최정현 5973		월		고혈압, 심장질환	★
	황성철 5967	월, 화, 수, ㉠(국인 진료), 금	목		폐결핵, 감염성폐질환, 폐암	★
박광주 5967	해외연수중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월, 목	수		에이즈 관련 또는 열 질환과, HIV/AIDS, 발열, 기타 감염질환	★	
신승수 5968	화, 수	월, 금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	
오윤정 5968	월, 수, 목	화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박주현	금, 토	월, 화		호흡기질환	★	
일반진료 5968		수		호흡기질환		
내분비내과	이관우 5956	월, 수, 금	목		당뇨병, 내분비대사질환	★
	정윤석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 뇌하수체질환	★
	김대중 5955	월, 화, 목	수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
	이형숙	수, 금	화		내분비대사질환	★
	일반진료 5961	토, ㉠	수		내분비대사질환	★
신장내과	김홍수 4741	월, ㉠(예약), 수, 금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예약)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일반진료 5971	토	화			★
증양혈액내과	김효철 5992	수, 금			림프종, 골수종, 백혈병,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임호영 5991	월, 화, 목			식도·위장·대장·직장암, 각종 고형암	
	최진혁 5994	수, 금	월		두경부·식도·폐암, 유방암, 각종 고형암	
	박준성 5992	월, 화, 목	화, 목		혈액질환, 종양	
	일반진료	토	월-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알레르기내과	박해심 5905	㉠, 수*, ㉠	수		천식, 알레르기 질환, 류마티스, 루푸스	
	남동호 5905	화, 토	화*, 목		천식, 알레르기·류마티스 질환, 루푸스, 통풍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루푸스, 통풍	★
	김상하 5905	목	화, 금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질환	★
	일반진료		월		천식, 류마티스질환, 알레르기질환	★
					*는 관절염센터 진료	
내과일반	5970	월~토	월~금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아과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의학, 성장과 발달	
	김성환 5616	화, 목, 금	수		신경계질환, 간질	
	배기수 5623	월, 화, 금	수		신장학	
	이수영 5623	월, 수, 목	수		알레르기, 호흡기학	
	박문성 5617	월	월, 화, 금		미숙아, 신생아학	
	정조원 5621	㉠	월, 목		심장질환(대, 수, 금 오전은 심장 초음파 가능)	
	황진순	㉠, 금	㉠, 수		소아내분비 질환	
	박준은	㉠	월, ㉠, 목		소아혈액·종양	
	일반진료	월~토	월-금			
토요일은 특진1명, 일반 1명의 의사가 주마다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신경과	허균 5659	화, 수	월, 목		간질, 치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말초신경질환, 근육질환	
	방영영 5657	월, 금	화,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치매	
	이필휴 5657	월, 토	화,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간질	★
	일반진료 5657	수, 목, 금	목, 금		뇌혈관질환	
정신과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정신분열증, 사회공포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 및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이영문 5810	목, 토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노재성 5811	수, 목	월, 금		우울증 및 신경성 신체장애	
	신윤미 5812	월, 금	화, 수, 목, 금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 자폐안어장애	
일반진료	화	화, 목				
피부과	이성낙 5912	㉠(예약), ㉠(예약)			베제트병, 화학박피술	
	이은소 5912	월, 화, 목	㉠(예약), 수		건선, 여드름, 베제트병(화·레이저치료)	
	김유찬	월, 화, 목	화, ㉠(예약)		피부종양, 화학박피술(금·레이저치료)	★
	강희영 5914	수, 금	월, ㉠(예약), 목		백반, 무좀, 접촉피부염 (수·레이저치료) 색소질환	★
레이저치료	이지연		㉠(예약), 금		색소성 질환 (목·레이저치료)	★
	레이저치료		화, 수, 목, 금		예약에 의함	★
	일반진료 5913	월~토	월-금			
외과	김명옥 5761	월, 수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56	화	화, 수		식도, 위장질환	
	소이영 5756	수, 금			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종양, 탈장, 배변기능장애)	
	왕희정 5753	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서공옥 5753	월(재진)	월(초진),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창권 5756	월, 금	월, 금		장기이식, 소화기질환	
	김육환 5756	화, 목, 토			간·담도·췌장 질환	
	한상욱 5754	금	월, 금		위·십이지장 질환	
	정용식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갑상선 질환	★
일반진료	이국중 5753	목			외상외과, 소화기외과	
	윤태일	유방클리닉 진료	수		유방질환, 내분비 질환	
	김홍	토	목		위십이지장 질환, 급성복통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입수번호	의사명	진료시간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흉부 외과	이철주	5749	금	화	성인심장혈관외과	★
	소동문	5750	월, 수, 목		소아심장혈관외과	★
	최 호	5750	화	월, 목	폐·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
	강준규	5750		금	심장혈관외과	★
	이상수			수		★
일반진료	5750	토		심장외과, 일반흉부 질환		
정형외 과	강신영	5544		월*, 목	수부 및 상지외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수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전영수		월, 금, 토		골연부조직 종양 및 외상학	★
	조재호		토	수, 금	소아정형(변형교정, 키 늘리는 수술), 외상	★
	일반진료	5542	화, 수, 목, 토	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
	신경외 과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수, 목	월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현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해외연수중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
김세혁		수	수, 금		뇌종양, 뇌혈관 질환	★
심숙영	월, 토			뇌종양, 외상, 일반신경외과	★	
성형외 과	박명철	5611	월,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화, 목	금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박동하			월, 수,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
	황인석	토	화		미용성형	
일반진료	월~토	월~금				
산부인 과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해외연수중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5594	월, 수	화, 금	부인암, 복강경수술	
	양정인	5593	원, 困	월, 수, 목, 수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금	불임, 습관성 유산, 부인과(복강경)	
	이정필	5595	월, 토	수, 목	부인암, 산과, 부인과	
	김미란	5643	화, 목, 토	화, 목	불임, 습관성 유산, 부인과(복강경)	
	일반진료	월~토	월, 수, 목, 금			
	안과	유호민	5669	월, 수, 금	원(예약), 困(예약)	망막, 초자체, 백내장
안재홍		5672	월, 화	금	각막, 녹내장, 백내장, 광절수술	★
문상호		5670	금	화, 목	안성형, 백내장, 렌즈클리닉	★
장윤희		5672	목	월, 목	사시, 소아안과	★
양홍석		5월부턴 진료 예정			각막	★
문찬식		수, 토			망막, 초자체, 백내장	★
일반진료		5671	월~금			
이비 후과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화난청클리닉	월, 목	중이염, 난청(유전성난청), 인공와우, 보청기	
	정연훈	5742	목(어려움)	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김철호	5746	월, 목	수음성클리닉	두경부 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 질환	★
	김현준	5746	수, 토	화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
	이준호	수, 토	목		난청, 어지럼증, 두경부 질환	★
일반진료	월~토	월~금				

진료과명 입수번호	의사명	진료시간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기 과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종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중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일반진료		월, 수, 목, 금, 토	월, 수, 금		
재활 의학 과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추손상	
	나은우	5796	화, 목	목,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임신영	6440	토	월, 화, 수	소아재활	
	일반진료		화	목		
진단사 과	김선용	5854	월, 화, 목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원재현	5863		월, 수, 금	혈액생화학(중재적 치료, 혈액관리, 하지정맥혈관치료)	
	일반진료	5145	수, 금, 토	화, 목		
방사선 종양 학과	전미선	5884	월~토	월~금	종 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
	오영택	5884	월~토	월~금	종 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강승희	5884	월~토	월~금	종 양(뇌종양, 육종, 정위방사선치료)	
핵의학과	윤석남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윤준기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신장외 과	이경중	5645		화		
	박재범	5644 5606		목		★
가정 의학 과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새별	5957	화, 금	수, 목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김범택	5957	월, 수, 목	금	비만, 골다공증	★
	신상호	5958	목		비만	
	일반진료	4808	월~토	월~금		★
치과	항병남	5869	화*, 목*, 금	월, 화, 목*	인공치아이식, 턱관절장애	
	이정근	5869	월, 화*, 수, 목*	화*, 수*, 목	악안면기형, 악안면외상, 인공치아이식	
	고석민	5869	월*, 화, 금*	월*, 수, 금	인공치아보철, 틀니	★
	일반진료	토	월~금		재진환자만 가능	

*는 별도 예약 ※ 토요일은 특진교수가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진료과명 입수번호	의사명	진료시간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야 간	세부전공	비고
응급 의학 과	조준필	6005	월, 수	금	화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윤석	6005	화, 목	수, 금	목	독극물중독, 응급질환	
	이국종	6005	금	월, 목	월, 금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원, 困**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 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